

전남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 '예산 갈등'

전남도교육청이 역점 추진중인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예산을 둘러싼 교육청과 도의회의 기싸움과 예산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교육자문관제 운용 예산도 전액 삭감에서 부분 삭감으로 조정됐으나 이 역시 도민소통이나 민주시민자문관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교육청은 "취지가 좋고 이해도 구했는데 유감"이라는 입장인 반면 도의회는 "실패했거나 첫 시도하는 정책이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안 가운데 28억1000만원을 삭감하고, 4억1000만원은 증액했다.

우선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운용비 4490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교육자문관제 운용비도 6개 분야 중 4개 분야가 삭감됐다.

전남교육공간혁신 자문관과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자문관 등 2개 분야 3596만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살아났으나 정책기획, 지자체협력, 민주시민, 도민소통 자문관 등 나머지 4개 분야 예산 4413만원은 모두 삭감됐다.

교육자문관제는 시범운영 차원에서 불시가 되살려진 반면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 예산은 올해 분예산(8700만원)에 이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1차 추경마저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전액 미반영됐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와 관련한 행정상 비용과 자문관 수당, 자료료, 교통비, 행정 업무 추진비 등으로 책정된 예산이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문관과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예산을 비롯한 몇몇 사업예산이 대폭 또는 전액 삭감됐다"며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장 교육감은 "자문관은 교육 정책에 대해 민간의 제안과 자문을 받기 위한 비상임 직책이고,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는 교육감이 주민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교육장을 임명키 위한 계속사업"이라며 "두 사업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일부만 반영되거나 이에 반영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서에는 "삭감된 이유를 잘 살피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한 예결위원은 "주민추천 교육장공모제의 경우 전

전남도의회 본예산 이어 1차 추경서도 전액 삭감 교육자문관 예산은 6개 항목 중 2개만 되살아나 "실패한 정책 신중해야" vs "이해구했는데 유감"

임 교육감 때도 운영 과정에서 각종 폐단으로 2012년 전격 폐지한 사업"이라며 "또 다시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취지에서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했다. 심사위원의 편향적 선정과 명단 유출, 내 사람 삼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서다.

일각에서는 교육참여위원회 구성과 그와 관련된 조직개편안과 조례

제정을 둘러싼 교육청과 도의회간 갈등과 입장차의 연장선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교육참여위를 둘러싼 잡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참여위와 교육장 공모제가 연동될 경우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승희 도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보다 밀어붙이기식으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해상 조난자 합동 탐색구조훈련이 18일 동해 인근 해상에서 해군 해난구조전대 심해잠수사, 구조함인 광양함, 공군 수송기 2대와 헬기 2대, 항공구조사, 해경 경비정 4척과 연안구조정 2척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또래 잔혹 폭행 사망' 10대들에 살인 혐의 적용 오늘 검찰 송치

기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사망 가능성 충분히 예상"

경찰이 또래를 상습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범행 직후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또래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물고문 뒤 조종했으며, 또래가 힘겹게 모은 돈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또래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18)군 등 4명에게 살인·공갈·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1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1시부터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30분 동안 또래 B(18)군을 번갈아 때리거나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B군이 주자

장 안내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월급 75만 원을 갈취하고, B군의 원룸 월세 보증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전남·북지역 고교 동창 또는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우산·막달·청소도구 등으로 B군을 상습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주 초 직업학교에서 만나 알게 된 B군을 자신들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동거하고 제안한 뒤 청소·빨래·심부름 등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위계질서를 형성해 B군을 사실상 노예처럼 부려먹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달 초 B군에게 가족 관련 패륜적 욕설을 강요한 뒤 세면대에서 물고문을 했고, 돈을 빌려오거나 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았다.

이들은 B군이 지난 4월20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주자장에서 일해 번 돈을 빼앗은 뒤 사흘간 출근하지 못할 정도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온 몸이 붓고 멍든 B군의 모습을 5차례에 걸쳐 사진·동영상으로 찍어 공유했고, 동영상 촬영 당시에는 일종의 노래 가사를 만들어 부르며 희화화·조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상습 폭행과 고문 행위는 B군을 겨루기·놀림 대상으로 삼으며 이뤄졌다.

경찰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B군을 괴롭히고 폭행해온 점, B군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정황과 진술, B군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최초 적용했던 폭행치사 혐의를 살인으로 바꿔 의을했다.

신봉우 기자

외국인등록증 위조 베트남인 2명 구속

여수해양경찰서는 18일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베트남 출신 A(33)씨와 동거인 B(32·여)씨를 공문서위조 및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서로 짜고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했으며, 베트남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본인 통장과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현금 60만 원을 받고 취업에 사용하도록 빌려준(공문서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한 달간 SNS에 취업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여수지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불법체류 베트남인 45명을 선인, 양식장, 유흥업소 등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취업을 알선하고 고용주로부터 1인당 5만 원~15만 원씩 받는 등 총 450여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경부터 급전이 필요한 베트남 자국민들을 상대로 외국인 등록증을 담보로 200만 원 이하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매달 40만원 상당의 고금리 대출 업을 하면서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등록증을 돌려주지 않거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송기홍 기자

만취 소란 뒤 편의점주 흉기 위협 50대 입건

광주 동부경찰서는 18일 만취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5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15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편의점에서 가위를 들고 욕설을 하며 업주 B(28)씨를 위협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편의점 주변에서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다 소란을 피웠으며 B씨가 조용히 해달라며 민원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취한 A씨는 주머니 안에 있던 가위를 꺼내 든 뒤 5분가량 욕설을 하며 B씨를 위협했으나, 함께 있던 전처가 가위를 빼앗아 제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회 들어가 목사 지갑 훔친 40대 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교회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강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25분께 광주 북구 모 교회 2층에 침입해 목사의 지갑을 훔쳐 체크카드를 수차례에 걸쳐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특별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짐집방을 전전하던 강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훔친 카드로 14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술을 구입했으며, 해당 교회에서 구걸 행위를 하며 보안을 허술한 출입문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비 끝에 행인 때린 불법체류 중국인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시비가 붙은 행인에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중국인 A(2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5분께 광주 서구 한 술집 앞 인도에서 행인 B(31)씨의 팔을 알루미늄 봉으로 1차례 때린 혐의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B씨 일행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승강이를 하다 격분, 주변에서 광고판 지지대를 들고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호위반 승합차가 경차 충돌...부부 숨져

광양에서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크게 다친 부부가 치료 도중 숨졌다.

18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7시20분께 광양시 광영동 모 주유소 주변 삼거리(편도 4차선 도로)에서 A(67·여)씨의 모닝 차량과 B(30)씨의 스타렉스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남편(72)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와 B씨의 딸(2)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